

청소년기 여성의 성태도*

김영혜** · 어용숙*** · 최소영**** · 이지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은 IT강국으로서 각종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성 정보는 더욱 팽창, 범람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반면에 기성사회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맥락 속에서 형성, 유지되고 있는 순결과 정절 이데올로기와 혼재되어 있으며, 성윤리나 행동에 있어 남녀의 구별이 엄격할 뿐 아니라 그 규범 또한 다르게 적용되는 등 성행동에 관한 이중적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성한기, 1996). 이러한 성에 대한 혼돈 현상은 청소년의 성행동 및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 때 가정 내의 성문화 내지 부모의 통제적 태도가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는 많다(박충선과 한유정, 1997; 이광자, 1990; 조미경, 2000).

한편, 인간의 성태도는 사회구조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관념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와 상호 역동적으로 관계하여 성적인 욕구를 분출하면서 표현되어진다(심희정, 1999).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태도는 결혼 전 성관념 및 결혼 후 성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기

의 인격 발달과정에 긍정적인 성태도 형성이 이후 성인기의 성태도 형성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이윤선과 이근후, 1987), 청소년기는 인생주기 상 어느 시기보다 성적주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중요한 시기가 된다(김현경, 최수정, 김미영, 양경미, 임미림, 1999; 이광자, 1990).

최근 여자 청소년의 성경험 시기가 빨라지고 성교경험이 증가하면서 성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거의 피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원치 않은 임신이 증가하고, 그 결과 인공유산의 빈도가 증가되고 있다(박영주, 구병삼, 홍명호, 김탁, 신재철 등, 1998).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조사에 의하면 남학생의 16.2%, 여학생의 7.5%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997년 한국성문화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대부분의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이성을 갈망하고 있었고 키스와 애무정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중학생의 11.0%가 성경험이 있었다고 보고하여 한국의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으로 변화해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 지식뿐만 아니라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상태, 성정보의 입수경로, 음란물 접촉정도, 비행청소년과의 접촉정도

* 본 연구는 2003년도 부산대학교간호과학연구소 연구기금으로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시간강사
****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및 가족간의 의사소통의 양과 질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혜, 2000; 조미경, 2000). 그 밖에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주거형태, 종교 등이 있다(Coleman-Kenney, 1992; 김주연, 1993; 남명희, 1999; 이은정, 1990).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였으며(남명희, 1999), 월경, 유방, 음모 등 생식관련 특성에 대한 태도 역시 남학생이 더 긍정적이었고 그 외에도 결혼, 임신, 성교 등 성발달에 따른 규범적 행위에 대한 태도와 이혼, 혼전 및 혼외 성교 등 비규범적 행위에 대한 태도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의 성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이은정, 1990). 주거형태에 있어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는데 남명희(1999)는 자택에 사는 학생들의 성태도가 개방적인 반면, 박영신(1988)의 연구에서는 자취나 하숙을 하고 있는 학생이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기독교를 믿는 학생이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에 비해 임신 경험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Troiden & Jendrek, 1987). 이혜숙(2002)의 연구에서도 성교, 피임, 임신, 유산과 원하지 않은 성교 등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성태도에 개방성을 나타내어 성행위와 성태도가 상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결국 성태도가 성행위의 강력한 예측인자(Miller와 Olson, 1985)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의 성태도와 관련된 연구(이혜숙, 2002; 남명희, 1999, 이은정, 1990, 박영신, 1988, 김주연, 1993)는 이성교제, 자위행위, 신체적 접촉, 키스와 애무, 성교 등과 같은 소극적 성행위에 대한 성태도로 명명하였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교를 한 청소년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2000년 여성개발원과 서울특별시부녀복지연합회의 여학생의 성경험률조사에 의하면 1967년의 1.6%에 비해 크게 높아져 7.5%로 나타났다. 그밖에 서울시내 남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현이(2000)는 17.9%로 보고했고 실업계 남녀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노주희(2000)는 34.1%로 보고하여 여자 청소년의 성경험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년 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성경험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조사지역과 대상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쨌든 10년 전에 사용했던 소극적 성행동의 측정도구로서는 오늘날 청소년의 성행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미 미국에서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타당도가 높은 Hudson,

Murphy와 Nurius(1983)의 성태도측정도구(Sexual Attitude Scale)를 사용하여 잠재적 성행동 즉 성경험을 예측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도구는 50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미만이면 개방적인 성태도로 해석하고, 그 이상이면 보수적 성태도로 판단하여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간에 비교도 용이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성태도의 정도와 그 유형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기 여성들에게 바람직한 성 관념을 확립시키고 건전한 성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기 여성의 일반적 특성과 성 의식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2) 청소년기 여성의 성태도와 성태도 유형을 파악한다.
- 3) 청소년기 여성의 일반적 특성, 성 의식 관련 특성에 따른 성태도 유형 차이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성태도

인간의 성적 표현에 관한 태도 및 성행동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의미하며(김소야자, 1986) 본 연구에서는 Hudson, Murphy와 Nurius(1983)의 SAS(Sexual Attitude Scale)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2) 성태도 유형

SAS에서 나온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50점 미만이면 '개방적 성태도'로 해석고하고 50점 이상이면 '보수적 성태도'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총점의 등급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0-24점이면 고도 수준의 개방적 성태도, 25-49점이면 낮은 수준의 개방적 성태도, 50점-74점은 낮은 수준의 보수적 성태도, 75점-100점이면 높은 수준의 보수적 성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성과 관련된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Hudson, Murphy, Nurius(1994)의 SAS(Sexual Attitude Scale)의 25개 문항에 답한 개인의 점수를 말한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개인별 성태도 점수가 50점 미만이면 개방적임을 의미하고 그 이상이면 보수적임을 의미한다.

3) 성 의식 관련 특성

청소년기 여성들의 성 의식과 관련이 있는 발달 특성을 의미하고 있으며 인터넷 채팅을 통한 이성친구 접촉경험, 배란날짜인식, 마지막 월경일 인식, 응급피임약 인식, 성 접촉거부, 성적인 문제 발생 시 의논여부와 의논상대의 관련이 있는 7개의 특성에 대한 것을 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연구대상은 2003년 5월 1일에서 5월 31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내 청소년 교육강좌에 참석한 여자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 총 930명 중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 불충분한 25명을 제외한 905명(97.3%)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성태도 관련 문헌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 특성 11개 문항, 성 의식과 관련이 있는 발달 특성 7개 문항, 성교 및 성행위를 전제로 한 태도에 관한 25개 문항으로 총 43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성태도 측정도구는 Hudson, Murphy와 Nurius(1983)의 SAS(Sexual Attitude Scale)로서 인간의 성 표현에 관한 개인의 생각과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강하게 부인한다'에 1점, '부인한다'에 2점, '동의도 부인도 할 수 없다'에 3점, '동의한다'에 4점, '강하게 동의한다'에 5점을 부여하여 최저 25점에서 125점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에 따라 성태도가 개방적인지 보수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 만약 환산 점수가 0-24점이면 성적 표현에 대한 태도가 '고도 수준의 개방적 성태도'를 가지며, 25점에서 49점이면 '낮은 수준의 개방적 성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50점에서 74점은 '낮은 수준의 보수적 성태도', 75점에서 100점이면 '높은 수준의 보수적 성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4등급에 따라 성태도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SAS 도구는 개발당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alpha 값이 .90이었으며,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 등도 높게 보고되었다(Fisher & Corcoran,

1994; Trolden & Jendrek, 1987). 본 연구에서의 성태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가 0.87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청소년 교육강좌에 참석한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교육강좌의 강사가 강의를 하기 전에 각 학교에서 파견된 교사와 보건소 관계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30분간의 설문지 응답이 있을 것을 공지하고 동의를 구한 후에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때 설문지의 응답요령을 설명하고 교육 현장에서 본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한 후 SPSSWIN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 의식과 관련이 있는 발달 특성, 성태도 점수는 백분율, 빈도, 평균을 사용하였다.
- 2) 대상자의 성태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 의식 발달 특성에 따른 성태도 유형의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χ^2 -tes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 의식 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연령분포가 15세에서 18세로 평균나이가 17.4세였고, 18세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불교가 38.6%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가족형태는 핵가족(91.3%)이었고, 가족수는 4-5명이 79.4%로 과반수이상이었다. 형제수는 연구대상의 62.9%가 2명이었으며, 90.6%의 부모가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집에서 거주하였고(96.7%), 아버지 직업은 기능직(38.3%), 기타(농업과 수산업, 24.6%), 사무직(21.4%), 전문직(7.2%)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53.1%이었다. 한달 평균 용돈은 72,000원

으로 5만원 미만이 42.9%이었고, 본인이 지각하는 건강상태에서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7.8%이었고, '보통으로' 지각하는 것은 38.1%이었다<표 1>.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905)

특	성	구	분	실 수 (%)
연령(평균 17.4세)	16세			203(22.4)
	17세			267(29.5)
	18세			313(34.6)
	19세			122(13.5)
종교	없음			339(37.5)
	불교			349(38.6)
	기독교			165(18.2)
	천주교			35(3.9)
	기타			17(1.9)
	해가족			826(91.3)
가족형태	대가족			79(8.7)
	2-3명			126(13.9)
가족수	4-5명			719(79.4)
	6명 이상			60(6.6)
	1명			95(10.5)
형제수*	2명			569(62.9)
	3명 이상			241(26.6)
	이혼여부*	이혼함		85(9.4)
부모님 이혼여부*	이혼안함			820(90.6)
	거취상태*	자택		875 (96.7)
아버지 직업*	기타			30 (3.3)
	전문직			65(7.2)
	기능직			347(38.3)
	사무직			194(21.4)
어머니 직업*	기타(농업, 수산업 등)			223(24.6)
	무직			76(8.4)
	있다			481(53.1)
	없다			424(46.9)
한달 용돈* (만원)	5 미만			388(42.9)
	5-10 미만			191(21.1)
	10 이상			77(8.5)
	기타			249(27.5)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음			151(16.7)
	보통			345(38.1)
	건강함			342(37.8)
	잘 모르겠음			67(7.4)

연구대상의 성 의식 관련 특성의 경우, 전체의 34.7%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한 이성친구 접촉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신의 배란 날짜를 인식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64.5%로서 인식하고 있는 대상자(35.5%)보다 더 많았다.

또한 자신의 '마지막 월경날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9.2%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는 알고 있는 대상자 60.7%에 비해 훨씬 작았다. 즉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배란날짜와 마지막 월경날짜를 인식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응급피임약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자는 54.6%이었으며, '상대방이 성적 접촉을 요구할 시 거부할 수 있다'는 대상자는 89.4%로 나타났다. '만약 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의논을 하겠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91.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중 구체적인 의논 상대로는 친구(47.9%), 어머니(35.8%)라고 응답한데 비해 성폭력상담소(9.5%), 이성친구(8.8%)는 매우 낮았다<표 2>.

<표 2> 연구대상의 성 의식 관련 특성 (N=905)

특	성	구	분	실 수 (%)
인터넷 채팅을 통한	있다			314(34.7)
이성친구 접촉경험*	없다			591(65.3)
배란 날짜 인식*	있다			321(35.5)
	없다			584(64.5)
마지막 월경일 인식*	있다			355(39.2)
	없다			549(60.7)
응급피임약 인식	있다			494(54.6)
	없다			411(45.4)
성적 접촉거부	할 수 있다			809(89.4)
	할 수 없다			96(10.6)
성적 문제 발생시 의논여부*	의논함			829(91.6)
	의논안함			76(8.4)
	의논상대(n=829)			324(35.8)
(합계가 다른 것은 복수응답 때문임)	어머니			16(1.8)
	아버지			7(0.8)
	담임			34(3.8)
	상담교사			20(2.2)
	친구			434(47.9)
	이성친구			80(8.8)
	친인척			9(0.9)
성폭력상담소			86(9.5)	

2. 연구대상의 성태도 정도와 유형

청소년기 여성 대상자의 성태도 평점은 3.1±0.4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수가 낮은 문항들은 '성은 오로지 젊은 이들만을 위하여 존재한다'(2.1±0.8),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가 많은 사람들은 성행위를 해선 안 된다'(2.4±1.0),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성 문제 혹은 성적인 일을 논의해선 안 된다'(2.5±0.8)이었고, 점수가 높은 문항은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성적 정보가 주어져 왔다고 생각한다'(3.6±0.9), '나는 요즘 십대에게 너무 많은 성적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3.6±0.8),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성에 탐닉한다고 생각한다'(3.5±0.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의 성태도 정도

(N=905)

내 용	평균±표준편차
성은 오로지 젊은이들만을 위하여 존재한다	2.1±0.8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가 많은 사람들은 성행위를 해선 안 된다	2.4±1.0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성 문제 혹은 성적인 일을 논의해선 안 된다	2.5±0.8
나이가 든 사람(노인들)들은 성교를 할 필요가 없다	2.6±0.8
결혼할 준비가 되었을 때 성교육을 해야한다	2.6±1.1
서로 동의하는 두 어른이 성 행위를 하든 말든 그들의 문제일 뿐이다*	2.7±0.9
나는 적절한 성행위의 유일한 방법은 성교라고 생각한다	2.9±0.8
동성애에 너무 많은 사회적 승인이 주어져 있다	3.0±1.0
서로 동의하는 어른들간의 성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있어선 안 된다*	3.0±0.8
사람들은 자위행위를 해선 안 된다	3.1±0.8
성은 출산과 같은 생식 활동에 기여해야 한다	3.1±0.8
나는 성은 결혼을 위해 유보되어야(늦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1±0.9
혼외 정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나쁘다	3.1±0.9
혼전 성교가 부패한 사회적 질서의 지표가 될 수 있다	3.2±0.8
나는 요즘 어른들에게 너무 많은 성적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3.2±0.8
요즘 TV에 섹스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온다	3.2±0.9
지나친 성적 패팅(애무)은 말려야 한다	3.3±1.3
나는 성적 자유가 증가함으로써 한국의 가정을 훼손한다고 생각한다	3.3±0.9
외설적인 포르노가 우리 주변 즉 책방(서점)으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	3.3±1.0
오늘날 영화가 성적으로 너무 노골적이다	3.3±0.9
나는 성교육이 가정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4±0.9
나는 요즘 젊은 사람들간에 충분한 성적 규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3.4±0.8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性에 탐닉한다고 생각한다	3.5±0.8
나는 요즘 십대에게 너무 많은 성적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3.6±0.8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성적 정보가 주어져 왔다고 생각한다	3.6±0.9
전체 평점 평균(총점평균: 51.4±9.4)	3.1±0.4

* 역문항임

하지만 이들 성태도의 총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평균 51.4±9.4점으로 나타나 “낮은 수준의 보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성태도 총점을 4 등급으로 구분하여 “개방성 대 보수성”으로 살펴본 바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수준의 개방성을 보인 대상자는 1.0%에 지나지 않았으며 높은 수준의 개방적 성태도를 보인 대상자는 33.6%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수성을 보인 대상자는 64.5%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높은 수준의 보수성을 보인 대상자는 0.9%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기 여성들의 성태도에서 보수성을 띄고 있는 대상자가 개방성을 띤 대상자보다 더 많았다.

<표 4> 연구대상의 성태도 유형 (N=905)

성 태 도 유 형	범 위	실수(%)
낮은 수준의 개방적 성태도	0- 24점	9(1.0)
높은 수준의 개방적 성태도	25- 49점	304(33.6)
낮은 수준의 보수적 성태도	50- 74점	584(64.5)
높은 수준의 보수적 성태도	75-100점	8(0.9)

3.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성 의식 관련 특성 에 따른 성태도 유형의 차이

먼저 대상자들의 성태도를 개방적 태도와 보수적 태도로 구분한 뒤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유형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제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대상자의 연령, 종교, 가족형태, 가족수, 부모님 이혼여부, 거취상태,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한달 용돈과 건강상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태도 유형을 개방형과 보수형으로 구분한 후, 성 의식 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바는 <표 6>과 같다. 먼저 인터넷 채팅을 통한 이성친구 접촉 경험률의 경우, 개방형 성태도를 보인 대상자(39.1%)가 보수형의 대상자(32.5%)보다 이성친구의 접촉경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chi^2=3.94, p=.04$). 또한 응급 피임약에 대한 인식이 있는 대상자의 비율에서 개방형(60.7%)이 보수형(51.4%)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chi^2=6.95, p=.01$). 그리고 개방형의 92.0%, 보

<표 5>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유형

(N=905)

특성	구분	개방형 실수 (%)	보수형 실수 (%)	χ^2	p
연령	15세	65(22.7)	108(21.9)	1.856	.603
	16세	87(30.4)	150(30.4)		
	17세	106(37.1)	172(34.8)		
	18세	28(9.8)	64(13.0)		
종교	없음	120(38.3)	219(37.0)	3.790	.435
	불교	128(40.9)	221(37.3)		
	기독교	47(15.0)	118(19.9)		
	천주교	13(4.2)	22(3.7)		
	기타	5(1.6)	12(2.0)		
가족형태	핵가족	279(89.7)	544(92.0)	1.392	.238
	대가족	32(10.3)	47(8.0)		
가족수	2-3명	52(16.7)	73(12.4)	3.454	.178
	4-5명	241(77.5)	476(80.7)		
	6명 이상	18(5.8)	41(6.9)		
형제수	1명	44(14.1)	50(8.5)	6.829	.033
	2명	190(60.7)	377(64.0)		
	3명 이상	79(25.2)	162(27.5)		
형제순위	첫째	159(51.0)	294(50.2)	1.288	.525
	둘째	133(42.6)	242(41.3)		
	셋째 이상	20(6.4)	50(8.5)		
부모님 이혼여부	이혼	30(9.8)	55(9.6)	0.041	.980
	이혼안함	264(86.6)	498(86.6)		
거취상태	자택	302(96.8)	571(96.6)	0.020	.887
	기타	10(3.2)	20(3.4)		
아버지 직업	전문직	22(7.7)	43(7.9)	2.122	.548
	기능직	127(44.6)	220(40.4)		
	사무직	59(20.7)	135(24.8)		
	기타(농업, 수산업 등)	77(27.0)	146(26.8)		
어머니 직업	있다	163(53.3)	318(55.9)	0.552	.458
	없다	143(46.7)	251(44.1)		
한달 용돈 (만원)	5 미만	134(58.3)	254(59.6)	0.142	.931
	5-10 미만	69(30.0)	122(28.6)		
	10 이상	27(11.7)	50(11.7)		
생활수준	하	22(38.6)	59(48.8)	2.404	.301
	중	16(28.1)	34(28.1)		
	상	19(33.3)	28(23.1)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음	58(19.9)	93(17.0)	1.548	.461
	보통	122(41.8)	223(40.8)		
	건강함	112(38.4)	230(42.1)		

수형의 88.0%가 성적 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개방형 대상자가 보수형의 대상자보다 성적 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었다($\chi^2=3.55$, $p=.05$). 그 외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도 수준을 $p<.10$ 으로 높였을 경우, 성 문제 발생을 가정할 때 개방적인 대상자가 보수형 대상자보다 아버지와 의논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표 6>.

한국 여성들은 억압적인 전통가치관 하에서 지내다가 1970년대 이후부터 산업화, 개방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 의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 비해 이혼율의 증가로 한쪽 부모만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9.4%가 부모가 이혼한 상태라고 응답했다. Harris와 Associates (1986)의 보고에 의하면 한쪽 부모와 살고 있는 10대 청소년의 성태도 및 성행동의 경우, 양쪽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보다 더욱 허용적이고 개방적이었음을

IV. 논 의

<표 6> 대상자들의 성 의식 관련 특성에 따른 성태도 유형

(N=905)

특 성	구 분	개방형 n=313(%)	보수형 n=592(%)	χ^2	p	
인터넷 채팅을 통한 이성친구 접촉경험	예	122(39.0)	192(32.4)	3.94	.04	
	아니오	191(61.0)	400(65.6)			
배란 날짜 인식여부	예	105(33.5)	216(36.5)	0.75	.38	
	아니오	208(66.5)	376(63.5)			
마지막 월경날짜 인식여부	예	119(38.0)	236(39.9)	0.31	.57	
	아니오	194(62.0)	355(60.1)			
응급피임약 인식여부	예	190(60.7)	304(51.4)	6.95	.01	
	아니오	123(39.3)	288(48.6)			
성 접촉 거부 의사	할 수 있다	288(92.0)	521(88.0)	3.55	.05	
	할 수 없다	25(8.0)	71(12.0)			
성 문제 발생시 의논여부	예	285(91.1)	544(91.9)	0.80	.37	
	아니오	28(9.0)	48(8.1)			
의논 상대	어머니	예	104(33.2)	220(37.2)	1.29	.26
		아니오	209(66.8)	372(62.8)		
	아버지	예	8(2.5)	8(1.4)	3.03	.08
		아니오	305(97.5)	584(98.6)		
	답답	예	4(1.3)	3(0.5)	0.63	.42
		아니오	309(98.7)	589(99.5)		
	상담교사	예	14(4.4)	20(2.9)	1.05	.30
		아니오	299(95.6)	572(97.1)		
	보건교사	예	7(2.2)	13(2.2)	0.01	.91
		아니오	306(97.8)	579(97.8)		
	친구	예	156(49.8)	278(47.0)	1.18	.55
		아니오	157(50.2)	314(53.0)		
	이성친구	예	32(10.2)	48(8.1)	1.19	.27
		아니오	281(90.8)	544(91.9)		
	친인척	예	4(1.3)	5(0.8)	0.63	.42
		아니오	309(98.7)	587(99.2)		
성폭력상담소	예	26(8.3)	60(10.1)	0.81	.36	
	아니오	287(91.7)	532(89.9)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의 이혼여부가 자녀의 성태도와 무관하였다.

성 의식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인터넷 채팅을 통한 이성친구와의 접촉을 시도한 대상자는 34.6%로 나타났다. 이는 손혜숙, 김혜옥, 김대현, 이종태(1999)의 31.2%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통신경험이 있다고 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71.9%가 컴퓨터 음란물 접촉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컴퓨터 음란물 접촉 후 컴퓨터 음란물의 내용을 모방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응답이 전체의 36%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음성적이고 퇴폐적인 성지식의 급속한 확산과 인터넷 채팅을 통한 여러 가지 문제는 여자 청소년의 성매매와 원조교제 등을 부추기는 통로로 이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컴퓨터 접촉여부에 따른 남자중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차이를 연구

한 김영혜, 이화자, 정향미(2001)의 보고에 의하면 컴퓨터 음란물접촉 군에서 비접촉 군보다 대상자가 인식하는 성지식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혼전성교에 대해서도 허용적임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성지식을 묻는 문제에서는 정답의 확률이 매우 낮아 정확한 성지식을 획득한다고 볼 수 없었고,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친구나 잡지, 컴퓨터 통신 등으로 통해 성지식을 얻는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자신의 배란 날짜를 인식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64.3%, 마지막 월경 날짜를 인식하지 못하는 대상수도 60.7%로 과반수이상의 여자 청소년들이 정확한 성 지식을 인지하지 못했고,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도 54.6%의 대상자만이 알고 있었다. 본 연구와 대상자가 다른 오혜경(2003)의 여대생 46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지식의 영역 중 생식생리 및 성생리에 관한 지식정도는 제법 높았으나 피임에 대한 지식은 형편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녀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한 다른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오세금, 2001; 이영희 등, 1997), 나타나 괴임과 관련된 정확한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의논 상대로 친구를 가장 높게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경순과 함미영(2000)의 연구에서도 성 문제 발생 시 상담자로 친구가 가장 많은 것(50.5%)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성에 대한 고민을 친구 등을 통해 상담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에 노출될 수 있어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편, 어머니는 친구 다음으로 성 문제 상담자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가 여학생인 관계로 어머니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반면 담임,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에게 상담하겠다는 대상자는 5.7%밖에 되지 않아 성 문제 발생 시 학교 내 선생님과의 원활한 상담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숨기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논하여 해결하려는 의지(90.8%)를 볼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지만, 의논상대로 또래 집단은 잘못된 성 정보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성지식과 올바른 성태도 형성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과 더불어 적극적인 자세로 성교육과 상담에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 여성의 성태도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이 51.4점(SD=9.4)으로서 낮은 수준의 보수적 성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치 기준점을 기준으로 성태도 유형을 분류한 결과 개방적 성태도를 가진 집단이 34.6%, 보수적 성태도를 가진 집단이 65.4%로 나타났다. 이는 Nurius와 Hudson(1988)이 성인 6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이 26.2점(SD=14.5)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적 태도를 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아직 국내에서는 SAS를 이용하여 성태도 유형을 측정한 연구가 없지만 한국여성개발원이 1984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19세 남학생의 16.2%, 여학생의 7.5%가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1996년 서울시 부녀복지연합회의 보고에 의하면 15-19세 미혼모의 첫 성경험률이 1984년의 46.9%에 비해 63.3%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저령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97년 한국성문화연구소의 조사대상 청소년 대부분이 이성 친구를 갈망했으며 키스와 애무정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남자 중학생의 11.0%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의 성태도는 미국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혜원(2003)의 경기서울지역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7%로 나타났고 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영, 박영주, 강현철 등(2000)도 십대여학생의 성경험률을 4.5%라고 보고했으며 MBC 청소년백서에서도 5.3%만이 성경험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오혜경(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6.1%, 보통이다가 44.8%, 개방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9.1%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에 대한 태도에 세대간의 차이가 나타남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성교육프로그램개발 시 이러한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와 국외의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과 성 의식 관련 특성에 따른 성태도 유형의 차이는 형제수, 인터넷 채팅을 통한 이성친구 접촉경험, 응급피임약 인식, 성적 접촉거부, 성문제 발생 시 의논 상대 중 아버지와의 의논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Troiden과 Jendrek(1987)의 연구결과와 다소 상이하였고, 오혜경(2003)의 연구결과와도 차이가 있었다. 즉 Troiden과 Jendrek(1987)의 연구에서는 종교적 신념이 깊은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보수적이었고($t=2.84, p<.05$), 보수적 성태도를 가질수록 성경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오혜경(2003)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없는 경우가 종교가 있는 경우보다 혼전 임신의 책임(남성), 결혼 전 유산, 결혼 후 유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러나 본 연구에서 종교는 성태도와 통계적으로 무관하였다. 인터넷 채팅을 통한 이성친구 접촉경험이 있을 때 성태도가 개방적이었는데, 이는 인터넷이 청소년의 성문화 형성에 주요한 통로가 됨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응급피임약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가 인식이 없는 경우보다 개방적이었는데, 이는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며(김소야자, 1986), 성태도가 높을수록 성경험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는 연구결과 들을 볼 때 ($r=-0.700, p<0.001$; 최희경, 1985), 올바르게 정확한 성지식은 건전한 성태도를 형성해 오히려 성경험

이나 성비행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Huston, Martin과 Foulds(1990)는 미국에서 10대들의 성행위에 대한 문제해결의 한 가지 대안으로 가족 내에서 성교육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장한 바 있으며, 또한 청소년의 성교육과 피임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우선적으로 충분한 교육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10대 임신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교사, 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가 참여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Odongo and Ojwang, 1990).

이상의 연구결과 청소년기 여성의 성태도는 낮은 수준의 보수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지만 조사 대상자의 34.6%가 개방적 성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한 이성친구와의 접촉이나 성문제 발생시 의논상대에서 친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볼 때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좀더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임신이나 피임에 대한 성지식의 부족은 성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는 작금의 시대에 차칫 잘못하면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추후 성교육프로그램 적용 시 이들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내용 즉 배란날짜 및 마지막 월경날짜를 제대로 인식하여 피임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기 여성들의 성태도와 그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건강한 성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평균 17.4세로서, 대부분의 가족형태는 핵가족이었고 형제수는 2명이 62.9%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채팅을 통한 이성친구 접촉경험이 34.6%로 나타났고, 배란날짜, 마지막 월경날짜, 응급피임약 등에 대한 인식은 과반수 이상이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성 문제 발생 시 의논상대도 친구가 47.3%로 가장 높았다.
2. 대상자의 성태도 점수는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평균 51.4(SD=9.4)로 “낮은 보수적 태도”를 보였고, 성태도 유형을 분류한 결과에서도 개방형이 34.6%, 보수형이 65.4%로서 보수형이 개방형보다 훨씬 많았다.

3. 일반적 특성과 성 의식 관련 특성에 따른 성태도 유형의 차이는 형제수, 인터넷 채팅을 통한 이성친구 접촉경험, 응급피임약 인식, 성적 접촉거부($p<.05$), 성 문제 발생시 아버지와 의논하겠다는 대상자의 비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10$).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년기 여성의 성태도는 낮은 수준의 보수적 태도를 보이지만 34.6%에 해당하는 여학생의 경우 개방적으로 변해 감을 알 수 있었고, 인터넷을 통한 이성 교제 비율도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성행동과 직결되는 배란날짜, 마지막 월경날짜 등에 대한 지식은 아직도 부족하고 친구를 통한 성 문제 의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청소년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개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특히 성태도가 개방적으로 변해 가는 특성을 볼 때 정조나 순결교육보다는 피임, 성병, 성행동 등과 같은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성교육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의 도구를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남녀간 성태도 유형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청소년의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stepwise multiple regression과 같은 고급통계기법을 적용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소야자 (1986). 도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 *간호학논집*, 9, 1-12.
- 김영혜 (2000). 한국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한 시청각프로그램이 성역할정체감 및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0(6), 1556-1567.
- 김영혜, 이화자, 정향미 (2001). 남자중학생의 컴퓨터 음란물 접촉자와 비접촉자간의 성지식과 태도의 차이. *아동간호학회지*, 7(1), 62-73.
- 김현원 (2003). 남녀청소년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현황 및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5(2), 309-328.
- 김현경, 최수정, 김미영, 양경미, 임미림 (1999). 성지식·성태도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내용 분석. 보건

- 교육·건강증진학회지, 6(1), 167-185.
- 문화방송 (2000). MBC 청소년백서.
- 박영주, 구병삼, 홍명호, 김탁, 신재철, 이찬, 문준, 오민정 (1998). 한국 10대 여성의 임신, 인공유산 및 출산경험 실태. *대한간호학회지*, 28(3), 573-582.
- 박충선, 한유정 (1997). 청소년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 일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1), 71-82.
- 박효미, 임미영 (2003). 멀티미디어 성교육프로그램이 남자중학생의 성태도와 성지식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9(2), 173-179.
- 성한기 (1996). 대학생들의 성에 관한 태도와 행동.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52, 207-229.
- 손혜숙, 김혜옥, 김대환, 이종태 (1999). 부산·경남 지역 중학교 남학생의 학년에 따른 컴퓨터 음란물 접촉실태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6(2), 55-66.
- 심희정 (1999). 청소년 성의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금 (2001). *대학생의 성지식 수준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혜경 (2003). 여대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2), 163-178.
- 이광자 (1990). 청소년과 성문제. *대한간호*, 29(5), 5-9.
- 이영휘, 박미라, 송미숙, 유진희, 최순남, 한유미, 황윤정 (1997).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인천시 일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7(1), 26-35.
- 이운선, 이근후 (1987). 청소년기 성태도 형성과 그 중요성에 관한 통계적 관찰. *신경정신의학*, 26(1).
- 이은정 (1990). *고교생과 고교생 학부모의 성지식, 태도, 성교육 요구 시기에 관한 조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숙 (2002). 일부 여대생의 성 실태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8(1), 131-144.
- 장순복, 김소아자, 한인영, 박영주, 강현철, 이선경 (2000). *십대 여학생의 임신실태 및 예방대책*. 서울 : 십대 여학생보호위원회.
- 조미경 (2000). 여자중고학생의 성허용성과 성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 차은석 (1998).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태도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최윤도, 김성훈, 안양희, 이종일 (1984). *고등학교 성교육 실험수업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희정 (1985).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성에 대한 경험, 지식 및 태도 조사 연구. *중앙의학*, 49(2), 93-102.
- 한경순, 함미영 (2000). 일개 대학 대학생들의 성지식,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1), 115-131.
- Fisher, J., & Corcoran, K. (1994).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A Sourcebook(2nd Edition)*. A division of Macmillan, Inc. New York, 566-567.
- Harris, L., & Associates. (1986). *American teens speak ; sex, myths, TV and birth control*. New York :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
- Hudson, W. W., Murphy, G. J., & Nurius, P. A. (1983). A short-form scale to measure liberal vs conservative orientations toward human sexual expression. *J Sex Res*, 19, 258-271.
- Huston, R. L., Martin, L. J., & Foulds, D. M. (1990). Effects of a program to facilitate parent-child communication about sex. *Clin Pediatr*, 29(11), 26-33.
- Miller, B. C., & Olson, T. D. (1985).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in relation to background and contextual factors. *J Sex Res*, 24, 191-200.
- Nurius, P. S., & Hudson, W. W. (1988). Sexual activity and preference : Six quantifiable dimensions. *J Sex Res*, 24, 30-46.
- Odongo, F., Ojwang, S. B. (1990). Some aspects of teenage pregnancy in Nairobi : a prospective study on teenage mothers at Kenjatta National Hospital and Pumwani Maternity Hospital. *East Afr Med J*, 67(6), 432-436.

Troiden, R. R., & Jendrek, M. P. (1987). Does sexual ideology correlate with level of sexual experience? Assessing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SAS. *J Sex Res*, 23(2), 256-261.

- Abstract -

A Study on the Female Adolescents' Sexual Attitude in High School*

Kim, Young Hae** · Eo, Yong Sook***
Choi, So Young**** · Lee, Ji Won*****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attitude for sex in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provide basic sex education program. **Method:** The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905 students in the high schools

and collected during the period from 1st to 31st May, 2003. Data were analyzed by SPSS WINS. **Result:** The level of sexual attitude was low level of conservative. Thirty five percent of adolescents in the study perceived liberal sexual attitude based on the cut-point suggested by Hudson et. al.(198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sexual characteristics and sexual attitude in the familial characteristics, contact of internet chatting, the perception of post-contraceptives, reject of sexual contact and sexual counseling with parents and significant others. **Conclusion:** It is required to develop sex education programs in order to establish sexual attitude in the female adolescents.

key words : Female adolescent, Sexual attitude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project, Pusa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 PNU)
*** Lecturer, at th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 PNU)
**** Assistant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 GNU)
***** Professor, at the College of Nursing, Pusan Catholic University